

韓國農工學會 편

# 食糧基地建設의先鋒

## 絕對農地擴張營農機械化



會長 南榮熙

韓國農工學會가創立한지도 어언 18년의歲月이 흘렀다. 그동안 752名의會員이 1265名으로 513名이 늘어났다. 學會의體制와運營面에서도 學術團體로서의權威와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最近의食糧問題는 全人類의 삶을 危脅하는 切迫한事態로 까지 번져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食糧의 自給이 그 어느때 보다도 切實히 要求되어 上課業의 位置에 놓이게 됐다.

이食糧問題解決은 한마디로 最大限의增產策에 있는것이며增產策의 根幹은 곧 土地의 生產性을 높이는 일과 絶對農地를 擴張開發하는 일인 것이다. 이를 課業 즉 既存農土의 生產條件을改善, 整備하여야겠다. 灌溉排水等水利施設의 設置와 耕地整理를 비롯하여 開墾, 干拓을 通한 새로운農地造成해야한다. 人力과 力爲主의營農形態를 機械化營農으로 代替하기 위한農業機械化事業등은 곧 農業工學技術을 中軸으로 하여 遂行되는 것이기에 農工技術은 곧 우리나라食糧問題解決에 있어 先驅의役割을擔當하는 것이다. 農工學會는 이를 農工技術人의總集結體로서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學術研究 및 技術開發과 普及에 臨하고 있다.

1975年度의 學會主要事業으로는 年4回의 農工學會誌發刊을 비롯하여 2회 세미나開催 3編의 技術書籍審議編纂等을 内容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學會組織에 있어서는 專門化된 委員會와 分科委員會을 細分, 強化하여 國內外의 關係技術情報의 草集分析과 專門의 技術諮詢에 응고하고 있다.

지난해 까지는 編輯, 灌溉排水 農地造成 및 農業機械分科等 4個分科委員會로構成하여各己이들分野의 專門技術을 擔當하여 오던것을 다음 7個委員會와 5個分科委員會로細分하였다.構成人員面에 있어서도 118名으로大幅增強하여名實共司 우리나라 農業工學의 專門學術 및 技術發展에 獻身的으로 寄與하고 있다.

한편 地域單位로 會員相互間의 技術 및 學術情報의 交流를 보다迅速히 그리고 結束을 공고히 하기 爲하여來年부터는 各道單位로 農工學會支部를 設置할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이밖에 國際灌溉排水委員會(ICID)의加入과 國際的인 農業工學關係 學術會議에도 會員을 積極參席하여 國際舞臺에서도 우리의 實力を 誇示토록 할 것이다.

### 專門委員會構成表

